



연중 제18주일

순교 사적지 황무실 성지

입당송 시편 70(69), 2, 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이사 55, 1-3

화답송 시편 145(144), 8-9, 15-16, 17-18(◎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
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
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
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
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
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
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로마 8, 35, 37-39

복음 환호송 마태 4, 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마태 14, 13-21

영성체송 지혜 16, 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
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
었나이다.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013

관할

대전교구 / 신합덕 성당 041-362-5947

황무실은 충청도 내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직후부
터 신자들이 거주하던 오래된 교우촌이다. 초기 신
자로 알려진 유군명(시메온)은 입교한 뒤 종들의 신분
을 벗어나게 하여 일찍부터 하느님 안에서 평등을 실
현하였다. 100여 명의 신자가 거주했던 황무실 교우
촌은 박해 중에 숨어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안식처였는데 프랑스에서 도입된 영해회라는 사업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고아들을 입양하여 가족으로 삼기
도하였다.

황무실의 첫 순교자는 이보현 프란치스코로 1800년
해미에서 순교하였고, 그 밖에도 많은 이들이 홍주,
해미에서 순교하였다.

황무실 교우촌은 병인박해로 붕괴되어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 현재는 순교자 현양비가 세워져 있다.

‘말씀의 향기’를 맡는 방법



여해동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
덕계동 주임

오늘 주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의 뜻과 의미를 파악했다고 해서 ‘말씀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는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슴에 있는 코로 향기를 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 할 때는

먼저 성령께 내 마음을 비추어 도와주십사고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같은 성령께서 애초 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사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던 그 성령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어진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머리로 그 뜻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끝을 낸다면 그것은 올바른 묵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독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다음 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파악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과 관련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들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묵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언어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틀림없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도로 끝을 맺어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왜 당신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이 기도는 이제 적절한 때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주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참으로 ‘힘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향기’는 나아가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기게 될 것입니다. ☺

거듭된 배교와 회개 끝에 신앙을 지켜낸

이국승 바오로

조선은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혈연공동체였다. 결혼하여 대를 잇고 제사 지내는 것을 인륜지대사로 여기는 조선사회에서 양반 남자가 신앙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충청도 음성의 양반가에서 태어난 이국승은 사회적 규율과 관습을 거부하고 천주교 신앙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은 동정 순교자가 되었다.

유학을 공부하며 장성한 이국승은 충주 지역에 전파된 천주교에 대해 듣고 이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 경기도 양근에 사는 권일신을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입교하였는데,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가족과 스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1795년 을묘박해 때 충주 포졸에게 체포된다. 모진 형벌에 굴복하여 배교하고 풀려난 그는 이내 자신의 나약함을 느낀 채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부모가 혼인시키려고 하자, 가족이 생기면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혼인을 거부하고 동정을 지켰다. 오늘날로 치면 수도자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거듭되는 부모의 압박을 피해 한양으로 이주한 그는 훈장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교회 일을 도왔다.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뒤에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 역시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옥에 이르렀을 때 마침 배교하고 옥문을 나서는 황해도 출신의 신자 고광성을 마주치고는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여 순교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이국승 본인 또한 고광성과 다를 바 없어, 문초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고 절규하였다가 고문이 끝나면 다시 회개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약함에서 벗어나 신앙을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1801년 7월 2일, 형조에서 결연하게 최후 진술을 하며 사형을 언도받았다. “비록 형벌을 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며칠 후 공주로 이송되어 참수당하여 순교하니 그의 나이 30세였다.

비록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굴복했을지라도 바로 회심하고 신앙을 지켜 낸 이국승 바오로의 삶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느님을 외면하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큰 모범이 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순교한 터에 황새 바위 순교 성지(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8)가 조성되었다. ☸

신앙 선조와 함께 하는 삶과 기도

“주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소서.” ‘복자 이국승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말씀 묵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참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위원회 ‘복자 124위의 약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자료집’ 3,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순교의 향기 - 이국승 바오로’, ‘인간적인 마음들을 넘어’(김정환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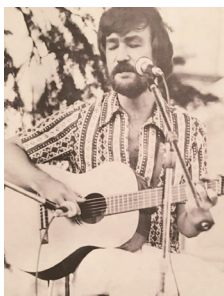


가톨릭성가 501번 “받으소서 우리마음”

“자네가 말야... 만약 돈을 충분히 못 벌어서 내게 돈을 갚지 못해도, 뭐 별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 이자 없이 갚도록 함세.”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날의 이야기. 멤피스의 전례 모임에서 만났던 클래런스 리버스 신부님께서 나의 음악을 들으시곤 그 자리에서 거금 삼천 달러를 내게 선뜻 내어 주시며 하신 말씀이었어. 1960년대에 삼천 달러라는 돈은 지금 가치로도 삼만 달러나 다름 없었을텐데...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을 결정지었던 날이라네.

- 미국의 저명한 성음악 작곡가 데이빗 하스 (David Haas)가 전해들은 조 와이즈의 찬양사도 이야기

카페 점원에 불과했던 조 와이즈(Joseph Edward Wise; b. 1939)는 이 날을 계기로 가톨릭 뮤지션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이후 무려 22개의 앨범과 다양한 히트곡 성가들을 만들어 내며 ‘기타 한 대로 노래하는 생활성가 찬양사도’란 이미지를 탄생시키고 확립합니다. 가톨릭 생활성가의 대부라고나 할까요? 1960년대 당시 가톨릭에 불어오던 변화의 바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전례에 있어서 교우들의 능동적 참여’와 ‘자국어 전례의 시작’ 및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수용’ 등의 지침이 정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가톨릭 성음악의 다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조 와이즈는 리버스 신부의 지원을 통해 1966년, 자신의 첫 앨범 <Gonna Sing My Lord (주님을 노래하리라)>를 테이프에 손수 녹음해 출판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민요적 어법을 차용한 대중음악인 ‘포크음악’에 가톨릭 신앙적인 기도 가사들을 더해, 창의적이면서 동시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인상적인 멜로디들을 기타 한 대와 진솔한 목소리 하나에 실었고 이 앨범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와이즈의 첫 앨범에 실렸던 “Take our bread(우리의 빵을 먹어요)”는 깊은 전례적 성찰을 통한 신앙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가입니다.

가톨릭 전례의 핵심이며 본질인 성체성사의 중심인 빵. 그 빵을 봉헌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모두 아버지 하느님께 사랑으로 봉헌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식탁에 둘러서서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우리 자신들, 그 모습 그대로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고 표징이라고 역설하고 있지요. 나아가 어색하고 어려운 라틴어가 아닌 자신의 모국어로 부르는 최초의 성가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Take our heart 받으소서 우리마음” 성가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4성부의 성가대에서 느껴지는 감동과는 또 다른, 통기타 반주의 진솔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처럼 말이에요. 까무도 일상에서 쉽고 가깝게 이 성가를 느껴보려 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
수동 주임

사회교리로 보는 노동

노동의 객관적 주관적 의미

노동에는 객관적 차원의 의미와 주관적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 차원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땅을 다스리고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활동과 자원, 도구와 기술을 집약해 오늘날 물질문명이 이룩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성과 뒤에는 노동하는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도구나 기계가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기에 노동에도 주관적 차원이 중시됩니다. 이 주관성은 노동에 특별한 존엄을 부여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성과가 달성되어도, 정작 노동하는 개인이 비인격적인 생산 도구 취급을 받는다면 하느님께서 이를 기뻐하시지 않을 터입니다. 그러니 노동의 주관적 차원은 객관적 차원에 우선해야 합니다.

노동할 권리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재산권을 가지며 가정을 유지합니다. 노동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므로 결국 인간은 노동을 통해 인류 가족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교리는 실업 문제를 염려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게 실업은 사회적 재앙이 됩니다. 정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경제 체제라면 무엇보다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증진할 의무가 요구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백주년」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의 대가로 빵을 얻을 의무는 동시에 그렇게 할 권리를 전제한다. 이러한 권리가 체계적으로 부정되며, 경제 정책의 결정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조건들을 달성하도록 해주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사회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43항)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 6,24)

불행히도 물질적 가치를 최상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사회교리의 가르침은 헛된 이상론으로만 맴돌고 있습니다. 재물이 사람보다 앞서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고, 노동의 주관적 의미 역시 격하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노동은 객관적 가치의 크고 적음과는 별도로, 개인의 본질적인 표현이며, ‘인격적인 행위’(actus personae)이다. 노동자를 단순한 생산 도구, 물질적 가치만을 지닌 단순한 노동력으로 격하시키려는 모든 경제적 신조나 물질주의는 노동의 본질을 왜곡할뿐더러 노동에서 그것의 가장 숭고하고 근본적인 인간적 합목적성을 빼앗게 될 것이다.” (교황청 정의평화회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271항) ●

천주교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



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

구독중



<온라인 어린이주보> 참여활동

-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5행시 기도를 해보아요!

총 44명의 어린이들이 <온라인 어린이주보>

5행시 기도문 활동에 참여해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기도해요.

난(란) 매일 나만 생각하는데 교황님은 세계

치안과 평화를 위해 힘쓰시고

스스로 낮추시어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십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교황님~ 힘내세요!

탄현동 성당 김명유 에스텔



프리지아 꽃처럼 천진난만함으로 주위를 밝힐 수 있는

란(난)초처럼 은은한 향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치자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스토크꽃처럼 화려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코스모스처럼 한가롭게 춤추며 살 수 있는, 모두의 평화와 교황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원동 성당 이재희 다니엘

프란치스코 교황님~

난 이나시오입니다~

치명적인 코로나가

스스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대화마을 성당 엄서윤 이나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

난폭한 사람들이 좋은 마음씨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열하게 싸우는 마음이

스르르 사라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덕정 성당 이은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난)생 처음 겪는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스스로 규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성당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탄현동 성당 신민아 스텔라



이번주엔 어떤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 이번주 온라인 어린이주보 바로보기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의정부교구_어린이주보

#온라인_어린이주보 #열세번째사도

프란치스코가 자기 소개를 한다

난(란) 천주교 신자이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치킨을 먹기 전에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스파게티를 먹고 식사 후 기도를 하며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

행신2동 성당 박태후 아브라함

추억이 행복의 샘이 될 때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레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생활지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레트로'라는 단어를 붙일 때가 많습니다. 외국말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이긴 한데, 사람들 마음의 풍경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레트로'의 복고취향은 사람들이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간직하고 싶은 추억을 원하는 바람일지도, 추억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은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문득 <셸부르의 우산>이라는 '추억의 프랑스 영화'가 떠올라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의 알제리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의 프랑스 노르망디에 위치한 항구도시이고 영화가 개봉한 것은 1964년입니다. 옛날 영화이지요. 하지만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대신 젊은 날 추억의 상징이 된 영화입니다. <카사블랑카>나 <타이타닉>같은 영화처럼 말이지요. <셸부르의 우산>은 자크 드미 감독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게 하는 영화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 까뜨린느 드뇌브가 이십 대 초반에 주연을 맡아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한 영화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재즈 음악가이자 영화음악 작곡가인 미셸 르그랑이 맡은 주제 음악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명곡입니다. 사실 주인공들이 일하는 우산가게와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 그들이 만나는 집과 길과 카페, 극장 같은 소박한 장소 외에 커다란 볼거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랑을 간직하고 지켜갈 힘이 없을 때 나눈 첫사랑이 사라져가고, 그럼에도 각자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내내 노래로 이어지는 뮤지컬입니다. 섬세하게 살아있고 다채롭게 감정을 실은 레치타티보와 애절한 노래들이 감탄하게 하는 색감 속에 흘러갑니다. 영화를 보며 자크 드미 감독의 재능과 생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크 드미는 이 영화를 '전쟁에 반대하는, 결핍에 반대하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행복을 파괴하는 무언가에 반대하는 영화'이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극도의 즐거움, 정제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미적 아름다움은 자크 드미 감독이 1990년에 타계한 후 2000년대에 영화 필름을 복원하

고 재개봉하면서 다시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된 복원작업을 맡은 사람이 그와 평생을 함께 한 아내이자 영화감독인 아녜스 바르다(1928-2019)였습니다. 아녜스 바르다가 노년에 들어 내놓은 일련의 다큐멘터리들은 인생의 지혜와 윤리, 위트, 공감을 담고 있는 감동적이고 위대한 유산입니다. 특히 <이삭줍는 사람과 나, 2000>는 삶과 영화를 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바르다는 자기 자신의 삶과 영화 세계에 대해 아름다운 세 편의 자전적 다큐멘터리인 <아녜스 바르다의 해변, 2008>,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2017>,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 2019>에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 십년에 걸친 그의 인터뷰들을 제퍼슨 클라인이 수집한 <아녜스 바르다의 말> (오세인 옮김, 마음산책, 2020) 역시 그의 생각을 알게 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지금도 그리워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부르는 자크 드미에 대한 추억을 말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가가 축축해집니다. 아녜스 바르다가 작품 속에서 자크 드미를 추억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추억이 '행복의 샘'이 될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추억으로 회귀하거나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녜스 바르다의 말>의 머리글에 그녀의 이런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바위들 사이에 작은 샘이 있고, 그 샘은 마르지 않죠. 이 철없지만 집요한 낙관주의는 제 행복의 원천이기도 해요." '레트로의 시대'에 추억에서 오늘의 행복을 위한 샘물을 길어오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셸부르의 우산>에서 까뜨린느 드뇌브와 주제곡을 부르는 장면을 다시 감상해 봅시다. 🎵

YOUTUBE로 보기



영화 <셸부르의 우산> 주제곡

'Les Parapluies De Cherbourg' OST



교구 소식

가톨릭스카우트 대원·지도자 모집

대상 초,중,고(대원) 성인(지도자)

문의 최병일 비오 010-9031-4542

2020년 1본당 1난민가정 돌봄사업 난민활동가 양성교육

일시 8/22(토)~9/26(토) 매주 토요일 6회, 10시~13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내 사적지 성당

대상 65세 미만의 남녀 교우

문의 구리엑소더스 031-566-1142

의정부엑소더스 010-9878-6926

파주엑소더스 031-948-8105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들은 8/14(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임지영 소피아, 여승철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8/7(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3,4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8/8(토) 10시

장소 양주백석 성당



미사 · 피정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가능)
자연순례피정: 10/26~28, 11/6~8
성지순례피정: 8/31~9/3, 9/5~8,
9/16~19, 9/21~24, 10/7~10
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 속에 쌓인 독소, 노
폐물, 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8/7(금)~10(월), 8/14(금)~17(월),
9/4(금)~7(월), 9/18(금)~21(월)
피정지도: 노경덕 토마스모어 신부(수유동)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8/13~16, 8/25~27, 8/31~9/2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8/8(토) 10시 정발산 성당
8/22(토)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피정안내

하계피정: 8/14(금)~8/16(일)
성경완독: 8/21(금)~8/29(토)
문의: 010-3340-0201



교육 · 모집 ▶▶

서울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일시: 9/8~1/19(금) 14시~16시(주간)
9/10~1/21(목) 19시~21시(야간)
장소: 가톨릭회관 205호, 주간/야간 318-2호
계좌(우리은행 1006-301-276411 예금주:
티없으신성심) 16만 원
문의: 서울마리아학교 010-9620-4820

2021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수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
집합니다.

지원구분: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
도자, 만학도(*1986.02.28이전 출생)
모집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
자추천전형, 학교장추천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원서접수: 9/23(수) ~ 9/28(월) 인터넷접수
교리시험/면접: 11/27(금)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소규모양로원 우양의집 입소자 모집

대상: 65세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실비(1인실/2인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
문의: 031-943-2120 (파주시 하지석길)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접수 및 등록: 8/3(월)~8/28(금)까지
/3개월 수업(9월,10월,11월)
대상: 연령 무관,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과, 성악·합창지
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
국악·양상불(남·여 그레고리오 성가·플루트·
현악·목관·리코더·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
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site>

커피바리스타교육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
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주 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예수회센터 영성강좌 (9월 개강)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화) 19~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박사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매주(수) 19:30~21:15, 권오면 신부
행복한 '뽕가정'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1,3째(금)14~16시, 손엘디, 배카타리나 부부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안내 · 기타 ▶▶

제주성지순례 3일

일시: 8/24~26, 9/14~16, 9/21~23,
10/9~11, 10/19~21
장소: 제주성지7곳(신부님 성지해설)
문의: 064-805-9890 가톨릭사회경제연합
※ 한국성지167완주 순례모집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동선동)
문의: 010-3817-0567 노혜인 안나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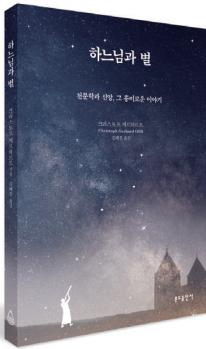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주전자사도회에서는 가족, 호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교메스영성상담소

영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만나면 삶과 회복
이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의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뿐 아니라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노경덕 신부 010-9916-5798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투스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수시(www.benedict.or.kr)	서울 돈암동 본원	010-8191-0377
	성소자 모임 예수와 만난 사람들	8/15(토) 14시~18시	소피아 기도의 집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3993-0316



천문학과 신앙,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하느님과 별

리스토프 게르하르트 지음 | 김혜진 옮김 | 면수: 136면 | 12,000원
 분도출판사
 문의 | 02-2266-3605 www.bundobook.co.kr

“내게 천문학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다.”

이 책은 천문학과 신앙이 어떻게 발전했고 반목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과학 아니면 신앙,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편파적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이 아름다운 세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인식할 수 있다.

자연과학 지식은 우리가 하느님의 행동과 가능성에 대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느님의 인간적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곤 한다. 자연과학과 그 지식은 하느님에 대해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계속 등을 떠민다 (114쪽)



언플랜드

애비 존슨, 신디 램버트 지음 | 권새봄, 이보연 옮김 | 면수: 216면 | 13,000원
 가톨릭출판사
 문의 | 002-6365-1854(김소정 편집 담당) edit@catholicbook.kr

한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인생이 뒤바뀐 한 여성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 책은 제목처럼 ‘언플랜드’, 즉 계획되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손길을 뻗치시는지 알려 준다. 애비 존슨은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원했지만 낙태 클리닉에서 일한다는 것에서 갈등을 느끼며 유대감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낙태의 진상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녀는 이를 목격하게 된 것을 하느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낙태를 더 이상 지지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존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생명 운동에 앞장서도록 이끄신다. 애비 존슨은 그 과정에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 책에서 주인공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시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35 영성의 향기

가치관 전쟁

김동규 바오로 신부
대신학교 영성지도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해도, 타협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글라서는 “질적 세계”(Quality World)에 대해 말합니다. ‘감각’과 ‘지적 인식체계’를 통해 지각된 현실의 사진 중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걸러 내고 원하거나 되고 싶은 모습들을 ‘질적 세계’에 저장합니다.

이 질적 세계 안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진들을 “가치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취향이나 습관, 사고방식, 도덕성, 정치적 신조, 인생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옳다고 믿거나 자기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는 모든 것들과 관계됩니다. 자신과 상대방이 지닌 질적 세계가 차이를 보일 경우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훈계하지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한 자격론을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은 채, 거의 ‘천지창조’ 수준으로(“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 1,3-24) 말로만 상대방에게 힘과 영향을 행사하려 합니다. 상대방을 구슬리고 설득하거나 비난과 강요를 일삼기도 하며,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고했으니 깨닫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가치관 갈등의 본질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왜 내 말에 상대방이 변

하지 않는다고 속앓이를 하고 미워하나요?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 역시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더도 덜도 아닌 나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말로 상대가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남의 말에 우리의 가치관을 쉽게 바꾸나요? 상대방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명령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신뢰하지 못하면, 훌륭한 조언에도 “지나 똑바로 살지”라며 콧방귀를 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상대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몇 마디 설득보다는 상대의 ‘질적 세계’ 안에 더 훌륭한 사진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힘을 빼고, 내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는 자기성찰과 신뢰성 있는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된 그리스도의 진리는 갈등을 극복할 용기와 지혜로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며 이후의 적절한 기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관용과 인내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안에서 본질을 통찰하는 식별력을 은총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